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마땅찮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마땅찮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마땅찮다

완성된 이름

마땅찮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마땅찮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마상	현재
맛당찮다	-	-	-	-
맛당찮다	-	-	-	-
마땅찮다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마땅찮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 마땅찮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마땅찮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맛당춌다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맛당찮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마땅찮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맛당춌- 문헌 수록 표기	—	—	—	—	●→	—
맛당춘-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맛당찮- 문헌 수록 표기	—	—	—	—	—	●→
맛당찬- 문헌 수록 표기	—	—	—	—	—	●→
마땅찮-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맛당춡다**
19세기미상
- **맛당찰다**
20세기
- **마땅찰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5종

맛당춡-, 맛당춘-, 맛당찰-, 맛당찬-, 마땅찰-

↳ 마땅찰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마땅찰다’의 옛말 ‘맛당춡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맛당춡-’은 알맞다를 뜻하는 ‘맛당후-’의 장형 부정 형식 ‘맛당후지 아니후-’가 줄어든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 이후 ‘맛당후-’를 ‘마땅하-’로 적게 되면서 ‘맛당춡-’도 ‘마땅찰-’으로 적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마땅찰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맛당춌-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맛당춌-

출처 1897 은진송씨송병필가언간 58

용례 01

66 문헌 용례

쑥지는 쏜 보나 하 쓴허지니 뵈 바닥 괴괴 맛당춌케고.

ㄷ 현대어 풀이

쑥정이는 쏜 보내나 잘 끊어지니 베 바닥 괴괴 {맛당춌겠고}.

20세기 맛당춌-, 맛당찬-, 마땅춌-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맛당춌-, 맛당찬-, 마땅춌-

출처 1934 조선일보 5월 13일 조간 5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무엇이 맛당찬어서 이러느냐.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조선일보 10월 25일 조간 4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영호는 학회의 거처할 곳이 맛당찬허 이리저리 궁리를 하여 보았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4

66 문헌 용례

마땅춌다 形 「마땅하지 않다」의 준말.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맛당춘-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맛당춘-

출처 미상 규방가사155ㄱ

용례 05

66 문헌 용례

조석꺼리 맛당춘나 이쓰고 잇난 모양 보고 잇난.

현대어 풀이

조석꺼리 {마땅찮아} 애쓰고 있는 모양 보고 있는.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마땅찮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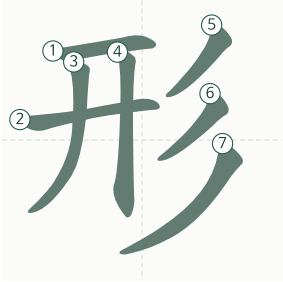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마땅찮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形 뜻·음 모양 형
총 7획 · 부수 彡



hanja.wordrow.kr/한자/形/